

## 제25회 법무사 헌법시험에 대한 총평

먼저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,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.

제25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, 쉽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게 구성된 문제가 3개(지방자치제도, 제대군인가산점제도, 부담금제도)나 있었다는 점,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7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, 쟁점 자체는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바, 선방한 수험생들도 있으리라 기대됩니다.

### 쟁점의 구성

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기본권 파트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, 평등권(2문제), 신체의 자유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언론출판의 자유, 재산권, 직업의 자유, 공무담임권, 재판청구권 등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(작년 8문제)

통치구조에서는 정당제도, 지방자치제도, 선거관리위원회, 국회(3문제), 행정부, 법원, 헌법재판소(2문제) 등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(작년 9문제)

### 지문의 구성

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51개(작년 68개), 법령지문은 49개(작년 26개)로 구성되었습니다. 작년에는 출제되었던 헌정사가 올해 출제되지 아니하였고, 오직 판례와 법령만으로 지문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### 수험준비를 위하여

올해 출제경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먼저, 법령의 출제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는 점과 하나의 중요 쟁점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.

따라서 수험생들은 판례 뿐만 아니라 법령도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,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.